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 12/25℃ 목포 13/24℃ 여수 17/23℃

단기 4342년 (음력 8월 18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489호 1판 2009년 10월 6일 화요일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국책사업비 공기업에 떠넘기기

'눈가림 예산' 걱정된다

영산강 살리기·호남고속철 차질 우려

정부가 4대강 사업, 호남고속철도 등 국책사업예산을 관련 공기업에 떠넘겨 해당 공기업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이로 인한 사업 차질이나 이용객들의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5일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호남·경부고속철도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내년 정부가 호남고속철도에 투입할 예산은 4천801억원이나 실제 반영된 예산은 2천500억원에 불과했다.

경부고속철도도 마찬가지로 국고투자액 5천630억원 중 2천500억원만 반영됐다. 나머지 5천431억원은 사업시행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떠안게 됐다.

정부가 내년 4대강 사업에 투입하는 5조4천억원 중 국토부가 3조5천억원을 담당하면서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공기업에게 편법적으로 예산을 부담케 한 것이다.

이 같은 편법예산 집행은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2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철도시설공단은 2011년 6천269억원(호남고속철도 4천477억원), 2012년 7천759억원(〃 6천210억원) 등 3년간 1조9천459억원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추가 이자 부담만도 약 1천6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철도시설공단의 추가 부담은 고스란히 호남·경부고속철도 건설비에 반영돼 결국 철도운임 인상 등 이용객들의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철도시설공단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규모 국책사업예산 전가 사례는 4대강 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가 4대강 사업 총 예산 22조2천억원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겼다. 수자원공사는 이 중 5조1천900억원을 다시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 시행하도록 했다. 예산부담은 수자원공사가 하고 실제 사업은 국토부가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또 국토부는 수자원공사의 8조원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변지역 개발권을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 채권에 대한 금융비용 전액 지원, 공기업 선진화에 반하는 증원 허용 등 특혜 시비도 일고 있다.

이용섭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공기업에 예산을 떠넘기는 눈속임을 하고 있다"며 "이는 법으로 금하고 있는 '분식회계'를 정부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황금빛 물든 호남평야 찬이슬이 맺힌다는 한로(寒露·8일)를 사흘 앞둔 5일 장성군 일대 호남평야에서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들녘과 어우러진 아담한 마을들이 늦가을 정취를 느끼게 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영산강 퇴적토 중금속 오염 심각

구리·납·아연 등 함유… 전국 토양오염도의 6배나

영산호 퇴적토의 오염도가 전국 평균 토양오염도의 최고 6배에 이를 뿐 아니라 오염퇴적토를 서울 여의도에 쌓으면 7m까지 쌓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이 5일 배포한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영산강 하구둑에서 몽탄대교까지 23.4㎞의 순퇴적 오니(汚泥)토 규모는 5천900만㎥였다. 이는 여의도(840만㎡)에 7m 높이로 쌓아야 할 정도의 양으로 순수한 모래는 0.18%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퇴적토는 구리·납·아연·니켈 등 중금속에 심하게 오염돼 있어 향후 영산강 준설 과정에서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7년 환경부가 조사한 전국 평균 토양오염도와 영산호 퇴적물오염도를 비교할 경우 납 오염도는 전국 평균 5.1mg/kg인데 비해 영산강 퇴적토는 29.9mg/kg로 오염 정도가 6배에 육박했다.

또 구리 오염도는 17.0mg/kg로 전국 평균 3.8mg/kg에 비해 5배, 아연 오염도는 108.8mg/kg로 전국 평균 83.3mg/kg에 비해 1.3배, 니켈 오염도는 19.9mg/kg로 전국 평균 11.1mg/kg에 비해 1.8배나 되는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특히 이 같은 퇴적토를 준설할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오염된 준설토를 해양투기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고형화시켜 매립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성공적인 4대강 살리기를 위해서는 준설토 처리를 국가의 예산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J프로젝트 삼호지구 내년 첫 삽

개발계획 6년만에 승인

전남도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 삼호지구 개발계획안이 정부로부터 최종승인을 받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첫 삽을 뜨게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3면〉

이로써 지난 2003년 J프로젝트 밑그림이 그려진 뒤 6년 만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게 되는 것이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암군 삼호읍 일원 J프로젝트 삼호지구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이 지난달 24일 국무총리실 기업도시위원회(기도위)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됐으며, 오는 8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 삼호지구 위치도

삼호지구는 J프로젝트 6개 사업지구 가운데 한 곳으로, 이번 기도위의 개발계획 승인으로 실제 개발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삼호지구 개발계획안은 지난 2월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총 조성사업비 4천496억 원의 10%인 450억 원의 법정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해 정부 승인 최종단계인 기도위에 상정되지 못하다가 최근 에이스회원권거래소가 최대지분 주관사로 참여하면서 재추진됐다.

전남도는 최종 승인이 이뤄진 만큼 앞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보상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께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北에 6자회담 복귀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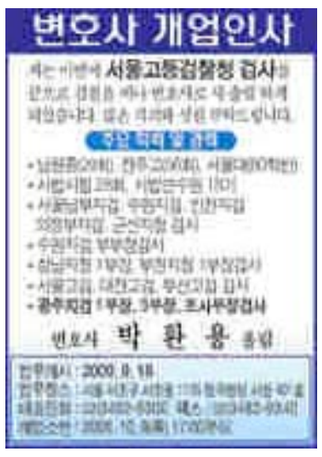
원자바오-김정일 면담

북한을 공식 방문 중인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북핵 문제와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원총리는 김 위원장과의 회동에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경제, 사회, 문화, 인도적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에 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원 총리는 김 위원장에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이 원 총리와의 회동에서 지난달 18일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면담에서 밝힌 '양자 및 다자대화를 통한 해결'에 대해 보다 진전되고 구체화된 입장을 내놓을지에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앞서 원 총리는 지난 4일 김영일 북한 총리와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와 양국 관계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협력협정서에도 서명했다.

원 총리는 오는 10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일 정상들에게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대북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연합뉴스